

## 발 표 요 지

1 9 8 3

第26回 全國歷史學大會  
科學史部會

1983. 5. 28.

## 古典漢文資料의 電算處理方法 연구

제명대 金基協

이 발표는 漢文자료의 컴퓨터 入力 및 이용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1982년 1월부터 1983년 4월까지 필자가 행한 실험작업의 결과보고이다. 이 작업의 내용에는 (1) 入力, (2) 符號轉換, (3) 漢字사용빈도 조사, (4) 檢索등 네 가지 중요한 단제가 포함되어 있다.

入力 준비를 비롯한 手作業은 啓明大 史學科 학생들이 담당했으며, 同校電算學科의 朴香在교수가 프로그래밍을 맡았고, 同校 電算室의 FA-COM 230과 그 부속기재가 사용되었다. 소요된 경비의 대부분은 문교부의 학술연구조성비 130만원으로 충당되었다.

## 1. 入 力

입력자료는 A(高麗史 卷 1~卷 3), B(高麗史 卷 38, 卷 39), C(太祖實錄 卷 14, 世祖實錄 卷 11, 宣祖實錄 卷 19), D(肅宗實錄 卷 41), E(純祖實錄 卷 14) 등 다섯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져 단계별로 입력되었다. 먼저 입력된 A~D 그룹은 그림 (1)의 符號化對照表에 따라 그림 (3)과 같은 作業紙를 거쳐 키 펀칭으로 입력되었다. E그룹은 그림 (2)의 대조표에 따라 같은

방법으로 입력했는데, 이 개선된 대조표는 A~D그룹의 입력과정의 능률과 입력결과의 품질을 검토하여 새로 작성한 것이다.

## 2. 符號轉換

그림 (1)의 대조표에 따라 작성된 C, D그룹의 파일을 전환시켜 그림 (2)의 대조표로 작성한 E그룹의 파일과 통합한 작업이다. 그림 (4)와 같은 전환표를 만들어서 그 안의 네 자리 숫자 가운데 앞의 두 자리에 나타나 있는 부호를 뒤의 두 자리로 전환시키도록 프로그램을 작성, 컴퓨터 안에서 처리하였다.

## 3. 漢字使用頻度調査

개선된 대조표에 의해 통합된 자료(C, D, E그룹) 약 16만자를 대상으로 글자별 사용빈도를 조사했다. 그림 (5)는 자료내의 글자별 사용빈도의 分布를 보여 주는 표이며 그림 (6)은 자료의 확대에 따른 사용字種의 확대를 보여 주는 표로서, 제한된 入力標本을 가지고 大型資料에 대한 작업계획을 세우는데 참고로 하기 위한 것이다.

## 4. 檢 索

大型資料의 검색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原稿 파일과 별도로 檢索 파일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번 작업에서는 원고 파일에서 직접 검색하는 방법을 썼다. 그림 (7)은 A그룹 자료에 대한 검색결과의 예이다. 漢字의 컴퓨터 프린팅이 가능하게 되면 키워드가 포함된 記事 전체를 出力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검색결과를 이용할 수 있게 되겠지만, 이번 작업에서는 一般索引과 같은 형태의 검색결과만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림 1 符號化對照表 (部分)

[illegible]

그림 2 檢 索 結 果 (例)

|             |      |          |          |          |          |           |          |          |          |          |          |
|-------------|------|----------|----------|----------|----------|-----------|----------|----------|----------|----------|----------|
| 0<br>03     | (新)  | 03-05-02 | 03-05-05 | 03-05-08 | 03-04-13 | 03-05-18  | 03-06-04 | 03-05-11 | 03-06-14 | 03-06-20 | 03-05-12 |
|             |      | 02-24-02 | 03-10-14 | 03-24-17 | 03-16-08 | 03-33-07  | 03-25-15 | 03-15-09 | 03-24-12 | 03-27-07 | 03-25-14 |
|             |      | 03-26-04 | 03-30-10 | 03-38-11 |          |           |          |          |          |          |          |
| 0<br>0611   | (文武) | 01-14-02 | 03-36-03 | 03-01-08 | 03-27-11 | 03-03-09  | 03-31-17 | 02-20-08 | 03-04-16 | 03-04-02 |          |
| 01<br>07 04 | (新學) | 01-18-02 |          |          |          |           |          |          |          |          |          |
| 01<br>15    | (米)  | 01-06-11 | 02-26-13 | 01-13-03 | 03-11-11 | 01-06-10  | 01-12-09 |          |          |          |          |
| 01<br>04 20 | (女學) | 03-28-07 | 03-09-06 | 03-26-05 | 03-09-05 | 03-06-03  | 03-09-02 | 03-09-02 | 03-09-16 | 03-09-11 | 03-09-11 |
|             |      | 03-25-06 |          |          |          |           |          |          |          |          |          |
| 01<br>15    | (表)  | 03-29-12 | 01-20-14 | 03-29-11 | 03-01-16 | 03-24-04  | 03-13-15 | 03-23-15 | 03-04-08 | 03-23-12 | 03-23-12 |
|             |      | 03-02-03 | 03-18-06 | 03-17-07 | 02-23-09 | 01-21-11  | 03-20-03 |          |          |          |          |
| 01<br>21    | (附)  | 03-38-04 | 01-18-11 | 03-24-18 | 01-20-08 | 03-36-08  | 01-16-18 | 03-24-11 | 01-24-09 | 03-27-02 | 01-17-03 |
|             |      | 03-13-05 | 01-27-11 | 03-22-08 | 01-18-03 | 03-37-014 | 03-20-08 | 03-29-11 | 01-13-05 | 03-24-11 | 03-14-11 |
|             |      | 03-25-08 | 01-27-03 | 03-30-05 | 01-26-06 | 03-18-04  | 01-25-11 |          |          |          |          |
| 01<br>21    | (步)  | 03-25-15 | 01-11-14 | 03-37-08 | 01-19-16 | 03-36-12  | 01-17-17 | 03-22-08 | 03-13-02 | 03-12-14 | 01-13-11 |
|             |      | 03-37-08 | 01-21-10 | 01-19-14 | 01-27-04 | 01-17-14  | 01-25-11 | 01-10-04 | 03-14-14 | 01-13-02 | 03-14-14 |
|             |      | 01-10-04 | 01-12-01 | 01-10-01 | 01-13-11 | 01-10-07  | 01-13-01 | 01-10-02 | 01-10-08 | 01-13-01 | 01-10-07 |

## 新儒學思想의 몇가지 根本的 傾向 들이 中國 ‘士’ 階層의 自然觀에 미친 영향

——朱子의 예를 중심으로——

서울대 金 永 植

中國文明을 들이켜 볼 때 가지게 되는 가장 흥미있는 질문의 하나가 “중국에서는 왜 과학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나?” 혹은 이보다 조금 완곡하게 “중국에서는 왜 獨自의으로 근대과학이 발전되지 않았나?”하는 점이다. 최근에 와서 중국에도 오랜 세월을 두고 독자적인 과학적·기술적 지식이 존재했고 발전해 왔으며 적어도 12~13세기경까지는 서양에 비해 여러 면에서 훨씬 앞서 있었다는 것이 인식되면서 이 질문은

더욱 자주 반복됐다.

그간 많은 학자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왔다. 그러나 이들 대답들은 대부분 중국 전통 사회 자체의 歷史的 狀況과는 관계없이, 서양에서 근대과학이 형성되는 데 기여한 요소들을 찾고 그것들이 중국에는 없었음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이들 학자들은 중국에서의 수학(기하학)적 방법, 실험적 방법, 論理的 推論法, 商人階級, 創造主의 개념, 直線的 時間 개념 등등의 缺如가 근대과학의 출현을 막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들은 여러 다른 문화권의 自然에 관한 지식은 모두 서양에서 근대과학이 발전된 형태로만 근대과학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假定을 암암리에 內包하고 있다. 16~17세기 과학혁명기의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과 분리되어서도 어느 문화권에서나 위의 요소들이 근대과학의 형성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다.